

로터스월드와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는 10월 30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교육관 제막식 모습.



안재훈 L-Beaty 원장이 교육생들의 네일 아트를 참석 내외빈에게 소개하고 있다.



운문교육관에서 성관 스님이 교육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새로 개관한 운문교육관에서 교육생들이 미용교육을 받고 있다.

'자비-Beauty'로 캄보디아에 희망 전하다

로터스월드, 10월 30일 희망미용센터 이전 개관

기쁨 나누는 실천회 법인 해산하며
1억여 원 기금, 로터스월드에 기증
신축 교육관·부속 건물 등 들어서
2011년부터 무상 미용교육 시작해
8기 교육 중… 졸업생 150명 배출
9개월 교육 수료하면 취업률 100%
자체숍 'L-Beauty' 운영하며 실습도
"미용교육으로 살아갈 힘 얻었어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의 캄보디아 청소년 직업 훈련소인 희망미용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는 10월 30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비롯해 아동센터 원장 지우 스님,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 상임이사 경륜·대구 보광사 주지 능견·증평 불정선원 주지 범일·양주 지장사 주지 종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시엠립 분관장 박승규 총영사, 시엠립 주정부 인사와 미용센터 학생과 졸업생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건립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건립에는 운문사 승가대학 28기 도반 모임인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의 역할이 컸다. 이제 시절 인연이 다해 법인을 해산하게 된 실천회는 2016년 남은 자산을 뜻 깊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후 사업 공모를 통해 로터스월드의 제안서가 채택돼 한화 1억여 원을 기증해 새로운 미용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사업 채택 후에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됐다. 로터스월드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마련해 둔 시엠립 시내 부지(364평)에 건축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운문교육관 신축공사, 주변 정리 및 조경공사가 약 8개월 동안 이뤄졌다.

새롭게 건립된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은 80평 규모의 신축 운문교육관과 40평 규모의 부속 건물 1동으로 이뤄져 있다. 운문교육관은 로터스월드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L-Beauty' 헤어숍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과 미용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속동에는 사무실과 한국인 미용교사용 관사, 게스트룸이 들어섰다.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라"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미용센터 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를 교육을 통해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하고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고, 자신이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겪었다"고 예를 들며,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 상임이사 경륜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승가대학 도반끼리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자 창립한 법인이 시절 인연을 다해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건립을 지원했다"면서 "오늘 새로운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희망미용센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 삶을 바꾸는 계기

로터스월드의 이번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은 시엠립 지역 청소년 직업 훈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 시작한 희망미용센터는 시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용기술을 무상으로 교육함으로서,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인 자체 헤어숍 'L-Beaty'를 창업·운영하며, 실습과 취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매 기수마다 20~25명을 모집해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하며, 현재는 8기가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50여 명이 수료했고, 모두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안재훈 L-Beaty 원장은 "매 기수가 졸업할 때 헤어쇼를 하는데 지역 헤어숍 원장들이 참석해 졸업생을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한다.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며 "캄보디아인은 미용에 자신의 월급 20%를 사용할 정도로 미용에 관심이 많다. 그 만큼 캄보디아 미용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미용 기술을 배울 경우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를 통해 한국의 미용 기술을 배운 학생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센터 2기 졸업 후 L-Beaty에 취업해 6년동안 일하고 있는 매니져 돗 소페아(24) 씨다. 어릴 때부터 헤어디자이너를 꿈꿨지만, 돈도 정보도 없던 그는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

자신을 "로터스월드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프로그램의 최고 수혜자"라고 밝힌 소페아 씨는 "그 시절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로터스월드가 제공한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8기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렝 티나(20) 씨는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티나 씨 역시 헤어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과 정보 부족으로 꿈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터스월드에서 교육을 받고 부터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티나 씨는 "센터에 온 날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즐겁다"면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해 언젠가는 개인 헤어숍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시엠립=신성민 기자

"작은 후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Interview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시엠립 시내 한복판 우리 부지에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센터가 새롭게 개관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10월 30일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 마친 이사장 성관 스님〈사진〉은 현지에서 가진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소감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로터스월드가 2011년부터 시작한 미용희망센터 사업은 BWC아동센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공부 편차가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미용기술을 배워 취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엠립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까지 수용했다.

처음에는 초기비용 등 재정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2013년 자체 헤어숍인 'L-Beauty'를 운영하는 등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립도가 마련됐다. 향후에는 L-Beauty의 고급화를 추진해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도 계획 중이다. 또한 선배들이 발전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교육생을 배출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할 복안도 갖고 있다.

"보통 미용기술은 10년 이상을 연마해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이 발전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 후배들이 다시 후배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아가 교육생들이 자신의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장차 추진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미용센터 교육생들처럼 조그만 관심과 지원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한테는 적은 돈의 후원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부대중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번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밝히는 어른으로 자라주세요"

(사)세상을 향기롭게, 10월 28일 로터스월드에 기증식

십시일반으로 자전거 450대 보시
통학 어렵던 인근 학생들에 전달

집이 멀어 통학의 어려움을 겪던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통학을 도울 수 있는 자전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10월 28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의 캄보디아 시엠립 BWC아동센터에서 자전거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비롯해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여여선원 해운대포교당 주지 도우 스님,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 보현선원 주지 효범 스님, 금강암 총무 도산 스님과 신도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림톳 캄보디아 사회복지부 차관과 차이관랍 부차관 등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학교가 많지 않은 시엠립 지역에는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실제 도보로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학교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사)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016년부터 로터스월드를 통해 시엠립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해왔다.

올해에는 자전거 450대 전달과 집 2채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고, 로터스월드는 지역 청소년 중 자전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시엠립 지역 사회복지부와 협의해 450명을 선발했다.

이날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부처님은 '세상의 많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살 때 삶의 가치가 있다' 고 설하셨다"면서 "오늘 자전거를 받은 학생들은 세상이 이익되고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10월 28일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시엠립 BWC아동센터에서 자전거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받은 자전거 앞에서 지역 학생들과 스님들이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집이 멀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자전거 700대를 기증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림톳 사회복지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전거를 받은 학생들은 이 나라를 이끌 꿈나무들"이라면서 "자전거를 깨끗이,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을 대표해 감사 편지를 낭독한 산 스레이 니웃(16, 중학교 9학년)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에 참석한 히빌라(13, 중학교 7년)는 "오늘 기증 받은 자전거는 제 인생의 첫 자전거"라면서 "오늘 스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캄보디아 시엠립=신성민 기자